

“빛·예술 담아 광주 과학세상 열겠다”

최은철 초대 국립광주과학관장 인터뷰

초대 국립광주과학관장으로 부임한 최은철(56) 관장은 “과학관은 과학을 토대로 휴식과 교양, 상상과 체험을 만끽하는 공간”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과학관에 들러 즐겨달라”고 말했다.

최 관장은 또 “광주의 상징인 빛과 예술, 첨단산업이 융화된 광주만의 독특한 과학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주개발 전문가인 최 관장은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장으로 재직하며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기초를 다졌고, 한국 최초 우주인 사업을 기획했다. 부산대와 부산대학교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영국 브리스톨대학원에서 공



정식개관은 9월말 돼야

방학엔 화·목·토 개방

업무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장, 서울과학관장,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국립과천과학관장 등을 역임했다.

- 지난 19일 초대 국립광주과학관장으로 부임했는데 소감은.

▲국립광주과학관은 독립 법인으로 만들어진다.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다는 의미다. 그만큼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 빛과 예술,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광주만의 독특한 과학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광주와 호남이 과학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 광주과학관만의 특징은.

▲광주과학관의 콘셉트는 빛이다. 빛은 현대 과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며, 예술성을 결정하는 근원이다. 광주과학관은 ‘빛·예술·과학’을 테마로, 광주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과학관은 전시물의 81%가 체험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관람객이 거의 모든 전시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

- 전시시설 중 가장 자랑거리는.

▲2층 빛과예술관의 ‘소리빛’을 추천한다. 소리빛은 관객의 소리가 빛으로 표현되고, 다시 빛이 소리로 표현되는 공감각적 과정을 체험하는 곳이다. 미디어아티스트 전병삼 작가의 작품이다. 다른 과학관에 없는 빛과 소리가 조화된 환상적 공간이다. 해양존에 설치된 SOS(Sci-

81%가 체험형 자랑거리 과학문화사업도 펼칠 것

ence On a Sphere)시스템도 자랑할만하다. 이 시스템은 과학과 광주에만 있는 것으로, 쓰나미·태풍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어 교육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 운영 철학과 역점 사업은.

▲과학관은 전시장이 아니다. 전시물을 보려면 놀이공원에 가면 된다. 과학관은 과학대중화를 위한 장소이자,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장소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창의교육에 힘쓰겠다. 과학문화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김치축제와 연계해 음식에 담긴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며 즐기거나 뮤지컬·게임과 접목해 생활화하는 것이다. 다만, 과학문화사업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 여름방학 중 임시개관 요구가 많은데 가능성은.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개관도 미뤄지고 있다. 9월 말에 정식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여름방학동안 계속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없다. 현재 직원이 6명뿐이지만 임시개관을 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문을 연다. 매점·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일 운영은 어렵다.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방문하면 사고 우려가 있어 전화(062-960-6123~7)와 홈페이지(www.gn-sm.go.kr)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관람객 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 대구과학관 여파로 직원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 2일부터 열흘간 채용 공고를 내 지원

전형 보완해 20명 채용

내년에 추가 채용 할 것

자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전형방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채용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거나 객관성을 위해 점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형방법이 확정되면 지원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메일을 통해 전형방법을 알려겠다. 조금 기다려달라.

- 채용 규모는 얼마나 되나.

▲광주과학관의 총 정원은 37명이다. 관장과 이미 채용된 직원 6명을 빼면 3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채용에는 20여명만 뽑는다. 나머지 10명가량은 내년에 채용한다. 정원을 다 채우면 업무상 꼭 필요한 인원이 발생해도 충원할 수가 없다. 내년에 좋은 인재를 추가로 뽑겠다.

- 과학관 관람 에티켓을 조언한다면.

▲과학관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다. 과학관은 ‘필’이 꽃피면 하루종일 그곳에서 만져보고 조작해보는 곳이다. 주위에 피해를 끼치거나 전시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즐기면 된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안전 문제다. 전시물 사이를 뛰어들거나 다치거나, 유리문에 건다거나 하는 안전사고에 유의했으면 한다. 물론 안전요원 배치·음극대처 시스템 가동 등 안전대책에 힘을 쏟겠지만 관람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과학관을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조사를 하면 훨씬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글 비밀병기 ‘넥서스 7’ 공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고 바라(Hugo Barra) 구글 안드로이드 제품개발 총괄이 신제품 넥서스7을 공개하고 있다. 넥서스7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4.3 젤리빈’이 처음으로 탑재됐다. 두께는 기존 제품보다 약 2mm 얇아진 8.65mm다. 무게는 299g으로 기존 제품보다 50g 가벼워졌다. /연합뉴스

이동전화 가입비 내달부터 40% 내린다

미래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SW 특화펀드 조성... ICT 산업 집중 육성

다음 달까지 이동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된다. 또 내년에 30%로 낮추고, 2015년엔 전면 폐지된다.

벤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가 다음 달 설립되고, 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과 군 장교 복무를 거쳐 벤처기업가로 양성하는 이스라엘의 국가인재양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본판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됐

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SW 전문 창업기획사 선정과 SW 특화펀드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비타인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9월 중으로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사람 속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보기술 선정과 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2월까지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30개 기술분야의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11월에는 17개 출연연 공동기술주회사가 설립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01X 번호 → 010 통합 ‘예정대로’

현재, 방통위 식별번호 통합 이행은 합헌

이동전화의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5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강도씨 등 1681명이 “방통위의 번호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위헌 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일찌 의견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에 대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통위의 2010년 1월

15일자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018, 019번호 소유자가 3세대(G)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김정문알로에 서구 능성동 644-12 한림빌딩 7층 건강에 대한 올곧은 약속 김정문알로에 책임직원으로 만듭니다 무통충국지사장 정욱임 ☎ 062-526-3636	노다지식당 방림2동 73-10 방림식목식당 앞 닭발구이, 코다리찜 돼지양념불고기 전문 대표 이금주 ☎ 062-654-4563	화순민물추어탕 동구 학동 901-45 뽕뽕다리 앞 100%자연산 민물고기 취급 ☎ 062-233-7045	YONAMJA(총장로점) 총장로 2가 128번지 다이소 2F 파스타 피자,필라프 샐러드 스테이크전문점 ☎ 062-229-5252	광주음향 북구 오치동 1034-20 철순진치,체육대회,각종이벤트 행사전문 출장밴드,지역가수 섭외등 ☎ 062-351-2785	향하식당 월산동 374-8 동신대 한방병원 건너 물치마 삼계탕전문 ☎ 010-2093-2927
퍼스트네पाल(총장로점) 동구 불로동 109-5번지 2F 네पाल,인도 커리스토리,레스토랑 ☎ 062-225-8771	주렛초곡허니문 동구 불로동 122-3번지 두성빌딩 7F 허니문 전문 여행사 ☎ 062-222-2170	정통일식미도 동구 학동 750-7기 삼익세라믹 전문입구 성실 서비스 ☎ 062-228-0106	한우생고기간 일곡동 847-7 대림1차와 현대2차 사이 한우암소 탕탕이 전문 먹이류,식사료,후식류 ☎ 062-573-0722	경남이내사랑방 북구 오치동 955-7 우체국 뒤 매일국밥맞은편 간제이집,생선모듬찜 묵비(빚)밥 ☎ 010-2271-9709	보화당한약방 남구 월산동 328-2 양동시장 월산동쪽달전(메리)입구 한의약, 중의약연구소 ☎ 062-365-2875
생태한마리 금호동 723-14 일신APT 건너 생태탕 전문 ☎ 017-633-8642	수퍼니처(북구점) 북구 오치동 북부소방서에서 문흥지구쪽 100미터 지점 좌측 싱크대,인조대리석,불박이장 각종수납장,사무용 가구 ☎ 062-973-4934	금산인삼홍삼 광산구 월계동 763-5번지 금산에서 직접생산 순수홍삼 100%추출 홍삼액 50포 > 68,000 ☎ 062-973-4934	영암마트진월점 남구 진월동 청과,야채,정육,공산품,양곡 산지직송판매 구매전화시 신속배달 대표 김세중 ☎ 010-8610-3560	영암마트주월점 남구 주월동 청과,야채,정육,공산품,양곡 산지직송판매 구매전화시 신속배달 대표 오종복 ☎ 062-681-1127	THE조아정보통신2호점 북구 양동동 북평주세우 4거리에서 고도교쪽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요금수납,핸드폰약세시리취급 대표 조영균 ☎ 010-3220-5724
드림인력개발원 서구 쌍촌동 신화대학 사거리 광주지파사회 5F 서비스 전문가양성,의료복지분야 전문가양성,대학역량강화교육 커리어개발교육생 수시모집 ☎ 062-526-9696	본도시락(총장점) 동구 대의동 대학당 한의원 옆 도시락 전문점 대표 이점태 ☎ 010-6268-8262	CMB텔레콤 쌍촌동 1248-10번지 CBS방송국 건너편 4G, LTE 전문 대표 김중연 ☎ 010-5599-3235	황금대지꿈 북구 일곡동 827-1 일곡지구 광주은행 뒤 막걸리골목 국내산 암태지 한우 전문점 ☎ 062-573-8100	동네식당 월산동 돌고개 사거리 신한은행 옆 유황오리 동태탕,추어탕 ☎ 062-361-0107	예술회관 동구 학동 634-10 정도마트옆 정도마트옆으로 이전 했습니다. ☎ 062-227-3377
한씨네대가추어탕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정문 맞은편 막걸리골목 통추어탕+돌솥밥,추어탕+돌솥밥 추어전골,고추야채튀김, 추어튀김 추어만두 단체예약순남회영 ☎ 062-383-5666					